

“내수 부진 여전”...광주 제조업체 “3분기도 어렵다”

광주상의, 152곳 경기전망 ‘악화’ 소비 위축·고금리·환율 등 영향
“원자재가격 상승·해외수요 부진” 자금지원·기업규제 개선 등 필요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올해 2분기(4-6월) 반짝 회복했지만 3분기(7-9월)에는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15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분기(101)보다 4p 하락한 ‘97’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수출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

리의 더딘 회복 및 미-중 갈등과 중동사태 등에 따른 금리·환율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체감경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BSI는 수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2분기 실적은 건설업 등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주요국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겨우 기준치(100)를 회복했으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분기의 실적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통신, 기계·장비,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은 전분기보다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자동차·부품, 철강·금속, 식음료, 비금속 광물은 전분기보다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제품·통신(125)’은 에어컨 등 계절전들의 성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기계·장비(118)’,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111)’은 주요국 중심의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전망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면 ‘자동차·부품(78)’은 신차 출시 및 SUV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계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나왔으며, ‘철강·금속(61)’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및 중국 등 경쟁국들의 공급과잉 등이 우려되면서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됐다.

‘식음료(75)’는 휴가철 등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부정적 전망을, ‘유리·시멘트(60)’도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업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으로 다음 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88)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및 금리·환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소기업(99) 역시 기준치를 겨우 회복했던 전분기(102)를 뒤로하고 전망치가 다시 하락하면서 경기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규모별로는 수출기업(112)은 미국 등 주요국 중심의 경기회복과 함께 수출 호조가 기대되면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내수기업(94)은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체감경기가 다소 악화됐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대내외리스크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내수소비 위축(52.6%)’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당사 사업실적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

상되는 리스크로 기업들은 ‘유가·원자재가 상승(35.5%)’, ‘고금리 장기화(23.0%)’, ‘해외수요 부진(20.4%)’, ‘환율 변동성 확대(10.5%)’, ‘규제강화 등 국내 정책 이슈(7.9%)’,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2.0%)’ 등을 우려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내수 위축과 더불어 중동사태 및 미-중 갈등 장기화 등 국제정세 불안 또한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시름은 여전한 실정이다”면서 “지역 기업들이 불안정한 경영여건 속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 및 기업규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금호타이어, 장마철 공기압 무상점검 캠페인

금호타이어가 여름철 장마 대비 7월 한 달간 공기압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전국 타이어프로에서 진행되며, 타이어프로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본격적인 장마 시즌을 맞이하기 전 차량 점검은 필수이며, 타이어 마모도와 공기압 점검 등은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장마철 타이어 관리법을 선보인다.

우선 타이어를 점검할 때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본다. 외관 점검 시에는 바퀴를 돌려가며 눈과 손으로 타이어 트레드에 균열이나 손상이 없는지 살펴본다. 타이어에 박힌 작은 이물질이나 미세한 상처도 타이어 파열을 일으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못이나 자갈, 유리조각 등이 박혀있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자동차의 하중을 견디는 동시에 추진력과 제동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상시 확인이 필요하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여름철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공기압 점검을 통해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 줘야 한다. 차량에 적용되는 타이어의 권장 공기압은 차량의 매뉴얼이나 도어 안쪽에 부착돼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또 여름철에는 타이어 마모도 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타이어 마모상태는 트레드 주변 6곳에 표시된 △모양의 방향을 따라 접지면 홈 속에 볼록하게 표시된 마모한계 표시를 보고 진단할 수 있다. 마모한계선은 1.6mm 높이로 표시돼 있으며, 이 부분이 접지면에 노출될 만큼 타이어가 마모되면 수명을 다한 것이다. 마모한계선 기준 2.8mm 잔량 시 점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박소영 기자

제 1126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4 5 9 11 37 40	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3억8638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807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0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신세계, 지역 대학생 현장실습 확대 운영

전남대·조선대 학생 11명 대상 실무경험 제공...인재육성 기여

광주신세계는 올해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3회차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유동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 대학과 기업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잡았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달 간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현장실습 2회를 진행한 후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 전남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백화점 매장업무에 투입돼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등



광주신세계가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을 쌓고 인사, 총무, 경리부터 마케팅 전반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입사한 신입사원 멘토링과 접점 직무원 교육을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해 학생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주에는 모의면접도 진행돼 현장

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취업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대표이사는 “회사는 대학생의 신선한 생각을 얻고 대학생은 경험과 기회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직법인으로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추후 지역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금감원 Q&A

문 안OO는 매스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면 중 대출이자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보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으나, 은행이 민원인에게 통보한 심사 결과상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4%대)이었고,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되었는데 잔금 지급일이 임박하여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 대출을 받았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 임차인 서OO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던 중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한연장이 곤란하다는 은행 직원의 답변을 듣고 민원을 제기했다.

답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동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

자와 전세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시 전세보증금을 찾기 못할 수 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입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문 정OO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024년 1월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답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효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데,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계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문 윤OO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만기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에 연체가 발생. 해외 출국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가 고객정보에

등록되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소송 통보를 받은 후야야 인지했다.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한 것이므로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답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하여야 연체 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